

# 광주 지하철역 일회용 승차권 구입 '현금'만...이용객 '불편'

### 교통카드 충전도...후불카드·현찰 없을땐 타수단 이용해야 광주교통공사 "카드 수수료 문제 등 교체 추진 어려움 있어"

"현금 없는 사회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쓰이는 요즘 지하철 표를 사기 위해 돈을 들고 다녀야 하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매년 수백만명이 광주 지하철을 타기 위해 승차권 발매기를 이용하지만, 최초 설치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카드 결제가 불가능해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12일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98대의 승차권 발매기를 지역 각역사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승차권 발매기는 2개의 보통권 발급기와 우대권·할인권 1개, 카드 충전기 1개 등 총 4개가 붙어 있으며 대당 1천900여만원의 구매·설치 비용이 들어 현재까지 관련 예산으로 시비 18억여원이 소요됐다.

최근 3년간 이용자 수는 ▲2021년 314만여명 ▲2022년 336만여명 ▲2023년 354

만여명이며, 할인권과 우대권을 제외한 보통권은 ▲2021년 30만7천여명 ▲2022년 32만7천여명 ▲2023년 29만3천여명이다.

문제는 현재 배치된 98대의 승차권 발매기 모두 1회용 승차권을 구매하거나 교통카드 충전 시 현금만 이용할 수 있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오전 10시에 광주 동구 문화전당역에 설치된 승차권 발매기를 직접 이용해 본 결과 현금을 제외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를 두고 한 시민은 "자판기에서 음료수 하나 뽑는 것만 해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세상인데, 누가 현금을 들고 다니겠냐"며 "후불카드 대신 충전하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는데, 얼마 전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해 1회용 승차권을 구매



12일 오전 10시에 광주 동구 문화전당역에서 한 시민이 지하철 역사 내 설치된 승차권 발매기를 이용하고 있다.

/장은정 기자

하려다 현금이 없어 결국 택시를 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시민도 "지하철을 종종 타는지라 현금을 조금씩 챙겨 다니는 편이지

만 현금이 없는 날도 있다"며 "전체 역은 아니더라도 이용객이 많은 역에 카드 결제가 가능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현금 인출이 가능한 은행 ATM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불편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지하철 이용객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서울시는 최근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승차권 발매기를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1회용 승차권 주 이용객인 외국인과 어린이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광주교통공사 관계자는 "서울시의 기기 교체 계획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 정책상 교통카드 충전은 현금으로만 가능해 카드 결제로 교체하거나 카드 결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1회용 승차권 구매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내부적으로 교체를 논의해보려 한다"면서도 "승차권 발매기의 경우 '공공재산'인데, 카드 결제를 허용할 경우 수수료 부담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 출·퇴근길 등 인파가 몰리거나 이용객이 많은 역사를 대상으로 교체를 한정하더라도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은정 기자

## '외 근로자 분배' 후배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중형'

### 징역 15년...범행 도운 불법채류자는 집행유예로 감형

농번기에 외국인 근로자 분배 문제로 다툰 후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사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1년의 징역형을 받은 태국 국적의 불법채류자 B(28)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마을 후배 C씨의 목을 조른 뒤 농기구로 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농촌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하는 A씨에게 추가 인력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하자 마다툼을 벌였다.

몸싸움으로 변진 다툼 끝에 C씨가 사망하자 A씨는 시신을 B씨와 함께 화장장에 실어 유기하기도 했다.

태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B씨는 불법채류자 신분으로 조사됐다.

1심 선고 이후 검사와 A·B씨 모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C씨에게 다툼의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령 원인을 제공했다"고 살해를 정당화 할 수 없다"며 A씨의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한선 "관리자인 A씨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해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판사했다. /안재영 기자

## 생후 3일된 자녀 살해 '비정한 친모' 항소 기각

### 징역 3년6개월 1심 유지

태어난 지 사흘 된 자녀를 산 채로 땅에 묻어 죽게 한 30대 친모 등의 항소가 기각돼 징역 3년6개월의 원심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3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7일 목포 소재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사흘 만에 광양 한 야산에 묻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초 실시된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서 탈미가 잡힌 A씨는 당초 집에서 홀로 아들을 돌보던 중 돌연

숨겨 땅에 묻었다고 진술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묻었다고 자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홀로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기가 A씨의 범행으로 살해됐다"며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사했다. /안재영 기자

## 순천 아파트서 의식 잃은 일가족 구조

### 30대 홀어머니·10대 아들 2명...경찰 "경위 파악 중"

순천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3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 두 명 등 일가족이 구조됐다.

막내아들은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가족 간 범죄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12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분께 순천시 조례동 한 아파트에서 "동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엄마 A(30대)씨와 큰아들(10대), 막내아들(10대) 등 일가족 모두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집 안에 연락을 피운 흔적

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 환자로 분류된 A씨·큰아들과 달리 막내아들은 이날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나선 순천경찰은 A씨로부터 큰아들께 수면제를 먹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A씨와 두 아들 모두 치료 중이라 정확한 경위 파악은 진행 중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의 형사 입건 여부가 가려진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남편과 사별한 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아 홀로 두 아들을 키워 온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정기 기자·안재영 기자

### 도축장서 60대 기계에 끼여 사망

### 경찰·노동청, 중재법 적용 검토

화순 한 도축장에서 기계 교체 작업을 하던 60대가 사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화순을 소재 도축장에서 돼지털을 뽑는 설비를 수리하던 A(60대)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숨졌다.

설비 수리는 2인 1조로 수행해야 하나 A씨는 홀로 작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도축장 운영자는 "작업 지침을 지키라고 여러번 교육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망했고,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규모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을 적용 대상 사건을 전담하는 전남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경찰과 광주지방노동청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한 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입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화순=이병철 기자

상무지구 2,000평 실내스포츠공원

# 파라드시티

헬스

14일동안 CALORIE BAR lounge for Diet · detox cave

DANIEDEL Skin & Body Aesthetic

THE 14 DAYS BEAUTY SOLUTIONS

테니스

골프

062 374 0088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64 영무에디움 상가 2층

**HDK Korea**

㈜에이치디코리아는 DJI 컨슈머드론 전문판매 및 핸드헬드 전문판매 업체로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만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DJI 드론 및 카메라, 짐벌 제품 등 체험 해보세요"

임동점    광주 북구 금남로 24 | Tel. 062) 522-2000

금호빌드점    광주 서구 군분2로 54 | Tel. 062) 350-8397